

호스피스와 보완대체의학

한호협 출판부

1. 서론

의(醫)는 넓은 의미에서 예술(art)이고, 좁은 의미에서 치유 예술(仁術, healing art)이다. 이러한 치유예술 또는 인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행위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어떤 시기에는 무속을 이용하였으며, 어떤 때는 종교를 이용하였고, 또 어떤 때는 형이상학과 철학을 이용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완의학(補完醫學, Complementary Medicine)이나 대체의학(代替醫學, Alternative Medicine) 이니하는 말을 흔히 쓰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 자신들의 정통적(Conventional)인 서양 의학을 공식적(official)이고 진짜(True)이고 본래(Original)의 의학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본래의 공식적 의학을 기준으로 하여 이 틀 안에 들지 않는 기타의 의학, 의술, 전통요법, 민간요법 등을 모두 보충적이고 대체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보완대체의학이란 말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어 쓰이는 데에는 동양의학의 서양에의 유입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양 사람들에게 낯선 의학이 동양에서 왔으니 "동양의학"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의학을 상대적으로 "서양의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이란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동양의학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어 쓰이는 것이 이와 때를 같이 한다는 뜻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동양에도 전통 의학과 현대의학이 있고 서양에도 전통의학과 현대의

학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양 의학을 현대의학, 동양 의학을 전통의학으로 간주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동양의학의 일부인 침술이 의학계와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적 붐을 일으켰고 이것이 세계적 붐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때를 같이 해서 다른 의학들이 속속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낯선 의학들은 동양에도 많이 있었고 서양에도 많이 있었다. 이 크고 작은 의학들의 혼잡을 정리하기 위해 서양의학자들은 "서양의학 외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기술"들을 담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를 보완대체의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구미 각국에서는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도 보완대체의학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보완대체의학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제도가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음으로 한의학도 제도권 안의 공식의학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이 동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이들 의학 속에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증거를 속속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spiritual)으로 정상(well-being)인 상태"라고 정의한다. 완전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영적 건강을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찾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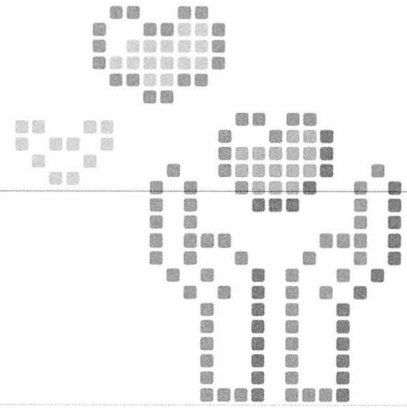
2. 동양의학, 서양의학, 그리고 보완대체의학

동양의학이건 서양의학이건 간에 의사가 다루는 대상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질병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을 퇴치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궁극적 목표는 같다. 단지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질병은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는지에 대한 이해 방법과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접근 방법과 시술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양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정통의학으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에는 서로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고, 비록 서로 다른 면이 다소 있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동양의학에도 있고 서양의학에도 있는 개념이나 이론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동양의학에서 더 강조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서양의학에서 더 강조하는 점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차이점이라고 간주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식체계의 바탕이 동양의학은 철학적이고 서양의학은 과학적이다.
- 동양의학은 주관적인 면이, 서양의학에선 객관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
- 동양의학은 총체적인 이해, 서양의학은 분석적인 관찰이 강조되어 있다.
- 치료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양의학은 방어적이고 서양의학은 공격적이다.
- 동양의학은 경험적이고 서양의학은 실험적인 면을 강조한다.
- 동양의학은 적당성을 강조하고 서양의학은 정확성을 강조한다.
- 동양의학은 역할(기능)위주이고 서양의학은 해부학 위주이다.
- 동양의학은 건강 중심이고 서양의학은 병 중심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이 곧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차이점 하나 하나 마다 그 일부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 공통점이 되기도 하며, 동서의학 접목의 접합점이 되기도 하며, 상호 보완점이 되기도 한다.

건강과 질병의 변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이 '정상(正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제2단계는 '자연 치유력'이 균형(均衡, balance)과 조화(調和, harmony)를 잃은 상태이다. 제3단계는 무형의 '자연 치유력'이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세포와 조직에 기질적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포나 조직에 부종, 충혈, 파열, 증식, 위축, 퇴행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제3단계가 병적 상태가 되는 것이다. 건강중심의 의학인 동양의학에서는 의자(醫者)가 상대하는 대상이 건강이며, 사람의 상태를 “건강”과 “불 건강”으로 나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대부분의 불 건강 상태를 기술할 때는 증(證, 症, syndrome)으로 나타나고 병명은 별로 없다. 반면에 병중심의 의학인 서양의학에서는 병(病)의 개념을 강조하며, 사람의 상태가 병적 상태와 무병의 상태로 구분된다. 서양의학에는 병을 찾아내는 진단 방법이 무척 발달하였고 또 병을 없애 버리는 치료 방법도 수없이 개발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건강중진을 위한 섭생법이 수 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고(正食), 제대로 자고(正眠), 제대로 움직이고(正動), 제대로 숨쉬고(正息), 제대로 마음 써야(正心)한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건강관과 질병관과 치료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질병의 3단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조화(調和) - 정상(正常) 건강(健康)	부조화(不調和) 불건강(不健康)	기질적 손상(機質的損傷) 질병(疾病)

●동양의학의 건강관(東洋醫學 健康觀)●

건강(健康)	불건강(不健康)
--------	----------

· 불 건강 속에 병적상태가 포함됨.

●서양의학의 질병관(西洋醫學 疾病觀)●

무병(無病)	병(病)
--------	------

· 무병 속에 불 건강의 상태가 포함 됨.

●치료적 접근법●

I	II	III
조화(調和) - 정상(正常) 건강(健康)	부조화(不調和) 불건강(不健康)	기질적 손상(機質的損傷) 질병(疾病)

· 증(證, 症)도 병(病)도 없다.

· 건강의 관리를 위하여 :

- ① 정식(正食)
- ② 정면(正眠)
- ③ 정동(正動)
- ④ 정식(正息)
- ⑤ 정심(正心)

· 불건강의 증(證)이 있다.

· 불건강을 이기기 위하여 :

- ① 생약(生藥)요법
- ② 기공(氣功)요법
- ③ 자극(刺戟)요법

· 병과 병증(病症)이 있다.

· 질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

- ① 화학(化學)치료
- ② 물리(物理)치료
- ③ 수술(手術)치료
- ④ 심리(心理)치료

동양의학의 치료법은 생약요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이 포함되며 자극요법은 침, 뜸, 지압, 부항으로 세분된다.

서양의학의 치료법을 대별하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화학적 요법, 물리적 요법, 수술적 요법, 심리적 요법을 들 수 있다.

동양의학의 생약요법과 서양의학의 화학적 요법은 둘 다 약물(drug)요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자극요법과 운동요법에서는 서양의학의 물리적 요법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양의학의 칠정(七精) 개념에서 서양의학의 심리적 요법과 유사점을 엿볼

수 있다.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수술적 요법에 있어 서양의학이 매우 강한 반면에 동양의학에서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동양의학의 핵심 개념인 기(氣), 오행(五行), 경락계(經絡系, meridian system)가 서양의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양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실험과 검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확대될수록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공통된 부분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